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48) - 흥룡사 청암부도(興龍寺 淸巖浮圖)

보문암 창건한 청암대사 사리를 모신 부도



최 중 규
포천문화유적 회장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5호
· 소재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흥룡사
· 규모: 부도2기 높이 156cm, 중심둘레 214cm

抱川市 二東面 都坪里 白雲山 興龍寺 東麓(동쪽)에 부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흥룡사에 위치한 흥룡사 청암부도(興龍寺 淸巖浮圖)

2층이安置되어 있는데 하나는 청암당부도(淸巖堂浮圖)요, 다른 하나는 묘화당부도(妙花堂浮圖)이다. 청암당부도(淸巖堂浮圖)는 仁祖 26년(1648년) 청암대사(淸巖大師)가 보문암(普

고 6·25動亂후 이웃 사찰인 보문암(普門菴)에 있던 것을 운반해 온 것인데 묘화당부도(妙花堂浮圖)가 興龍寺로 옮겨지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白雲山下에 주둔(駐屯)하고 있던 부대(部隊)에서 환경정리(環境整理)를 하기 위해 묘화당부도(妙花堂浮圖)를 부대(部隊)까지 운반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운반 도중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군인들이 부상(負傷)했는가 하면 옮긴 뒤에도 연달아 不祥事가 일어나 결국 급기야 浮圖는 다시 이웃 절로 가져다주는 중론(衆論)이 나와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었다고 한다.

교육에세이 21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아인슈타인(과학자), 록펠러(석유사업가, 자선가), 스티븐스필버그(영화감독), 조지소로스(세계투자의 큰손), 사갈(색채의 미술사), 쇼펜(작곡가), 프로이트(정신분석학자), 마르크스(자본론, 공산당선언 집필)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인류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들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1천 3백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고, 60억 세계 인구 중에 0.2%에 불과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세계의 리더로 주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최상위 부자 40명중 절반이 유대인이고, 언론부문에서도 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언론재벌 머독을 비롯해 워싱턴 포스트 타임과 같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들이 유대인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수,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 계층의 배출 통로로 알려진 아이비리그(미국의 8개 명문사립대 총칭) 입학생의 20%가 유대인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월가, 대형 로펌(법률회사), 영화계, 언론계 등도 핵심 자리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 수상자중 28%가 유대인이고, 국제금융의 경우에도 유대인의 자본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50대 기업 중 20 여개가 유대인 소유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상위 5대기업, 미국 상위 6대 은행들도 유대인의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유대인식 교육방법을 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신이 명한 계율이라고 여기며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가 유대인의 혼을 담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전통의 신앙사상으로 독특한 자녀교육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배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 의한 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밤 잠 자리에 든 아이에게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끊임없이 이야기로 들려주어 유대인의 혼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것이 세계도처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지역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만의 유대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교육에 미치는 엄마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지 않게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처럼 세계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재미있었니? 오늘은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웠니? 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질문을 많이 던져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질문이나 대답을 할 때 엄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절시키지 않고 상상력을

창찬해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높은 독서열은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얻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유대인 부모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이자 의무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침대머리 밑에서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한창 말을 배우 무렵인가를 표현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는 무수한 단어들과 익숙해져 풍부한 어휘를 키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4세 정도 되면 많은 수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또한 동화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과 친근해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살이 되면 누구나 탁아소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는 그리기나 만들기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동안 지도합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만들기를 통해 손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잠재적으로 익히도록 하면서 상상력을 구체화 시켜주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날 들어온 격려금을 본인 명의로 예금이나 채권으로 바꾸어 저금을 합니다. 그 후 아이가 자라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돈이 크게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유대인들은 당

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유대인의 성공비결은 결국 돈을 벌고, 불리고, 쓸 줄 아는 힘, 지식을 향한 열정과 미래를 대비한 창의적 교육에 유대인 특유의 혼을 넣어주는 가정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교육에 있어 어떠한 혼을 넣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관, 경제관, 인생관, 등 분명한 자녀 교육철학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사들에게 대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책과 돈을 동시에 땅에 떨어뜨렸다면 무엇을 먼저 집어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황금과 온갖 보석을 가진 사람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많은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해적에게 붙잡혔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교육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고, 부모는 자신을 세상에 데려온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이끈다는 교훈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거듭거듭 가르치면서 미래 생존방법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교육 노후가 우리 자녀교육에 꼭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전통 교육방식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 형
포천교육센터 교장

세익스피어 에세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정이 가능한가



박 정 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가 바탕에 깔려있다.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돈으로 사거나 회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자들이 사회 곳곳에 횡행한다. 종교적인 진리보다는 돈을 앞세우는 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로 나서거나,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보다는 당장 호추머리를 두둑하게 해주는 경제통을 선호하는 매우 실용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하는 사람들도 예술포는 흥행성을 먼저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인간의 귀중한 가치인 사랑과 우정도 본질보다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한다.

“ 친구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귀거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옆에 존재하는 것이 순수한 기쁨이 되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이러한 세태와는 대조적인 진정한 우정의 모형을 보여준다.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한 생명을 나눈 분신처럼 어느 한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킨다.

평소 다소 방탕한 바사니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벨몬트의 부호의 딸에게 구혼하기 위해서 거액을 꾸어달라고 부탁하자 안토니오는 두 말하지 않고 매우 위험스러운 조건으로 고리대금업자 아이일록에게 삼촌 더커트라는 거금을 대신 빌려 줌으로써 친구로서의 최대의 신뢰를 보여준다. 게다가 약속기한을 어겼을 경우 자신의 삶 한 점을 요구하는 증서에 서명하는 용감성은 더욱 빛나 보인다.

또한 바사니오가 사정에 의해 약속기한을 어긴데다가 자신의 상인이 폭풍에 난파되는 불행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안토니오는 바사니오가 자신을 배반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는다. 관객들은 그가 친구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에 놀란다.

물론 바사니오의 우정 또한 그에 못지 않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토니오의 편지를 받고 그를 구하기 위해 수백의 돈을 마련한다. 하지만 사일록의 복수에 대한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의 구원의 계획이 좌절될 상황을 맞이한다.

안토니오는 사일록이 피하는 그의 죽음을 우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바사니오에게 말하기를 "부인께 전해주게, 이 안토니오의 최후의 과정을 전해주게,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 주고, 죽은 후에 나를 좋게 말해주게, 자네가 친구를 잃은 것을 슬퍼만 해준다면, 나는 자네의 부채를 갚은 것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겠네. 저 유태인의 칼을 꼭 찔러만 준다면, 나는 당장 내 심장을 모조리 바쳐서 채무를 청산할 결심이니 말일세"라고 자신의 우정의 진정성을 표현한다.

여기에 대해 바사니오는 자신의 아내가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친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토로한다.

"여보게 안토니오, 내가 얻은 그 아내는 내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네. 그러나 그 생명도 아내도, 아니 이 세계도 내게는 자네의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 못하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으니, 자네 생명만은 구해내고 싶네." 후자는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지나쳐 동성애에 가깝다고 꼬집는 비평가도 있지만 이것은 우정의 농도가 매우 짙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포사의 지혜로서 안토니오의 생명을 노리는 사일록의 보복을 좌절시킨 후에도 바사니오는 그의 우정을 가능케 하는 시련을 치른다.

즉, 남편인 바사니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반지를 남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포사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의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반지를 달리는 가짜 박사, 포사의 잘못된 요구에 결국 우정을 위한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IMF시기에 친구를 위한 빚 보증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도산하기도 하고 파탄에 직면했던 상황을 기억한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이 결단나는 상황이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와 의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친구간에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행복과 우정의 기억은 일순간 사라지고, 그의 결정을 믿어 버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신뢰를 현재의 저주의 원인으로 삼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말았던 것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은 염두에 두지 않고 돈 거래를 하였다면 그 우정은 뿌리가 튼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희생물로 삼아도 했다면 그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어에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다. 친구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귀거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옆에 존재하는 것이 순수한 기쁨이 되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친구와 나누는 작은 정답이나 지혜는 서로의 영혼의 영양분이 되어 삶을 중요하게 한다.

죽마고우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정이란 인간성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이며, 어떤 물질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보석인 것이다. 돈으로는 어떤 물건도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자.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산 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낙시용품 포장지류

가공 제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